

중국어 강독수업에서의 번역 오류 고찰*

신 지 언**

<目次>

I. 들어가며	IV. 의미영역에서의 오류
II. 오류 유형	V. 나가며
III. 형식영역에서의 오류	

I. 들어가며

대학의 외국어교육에서 ‘강독’에 해당하는 수업은 교과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과목이다. 교과 과정에 ‘읽기’, ‘강독’, ‘독해’ 등의 명칭으로 교과목이 배치되어 있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어 능력 중에서도 읽기 능력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¹⁾ 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 학부에서의 중국어 강독수업은 주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과목 명칭에 ‘번역’이란 명칭이 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정도 및 이해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국어와의 비교 및 대조는 외국어의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어떠한 교수법을

* 이 논문은 2013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영산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1) 심영식, <스페인어 강독 원어 수업 분석과 응용>, 《스페인어문학》 44집, 2007, 422쪽 (박소영, <번역 교육 이론을 적용한 강독 수업 연구>, 《스페인어문학》 제64호, 2010, 84쪽 재인용)

사용한다 하더라도 외국어 학습에서 ‘번역’은 불가피한 과정이다.²⁾

그렇다면 학부 강독수업에서 행해지는 ‘번역’의 수준을 어떤 목표로 상정해야 하는가.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업의 목표가 ‘번역가’ 양성인지 중국어 학습과 숙달인지를 살펴야 한다. 강독 수업의 목표는 ‘학습’과 ‘숙달’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규범의 이해’이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중심의 교육법이 유행하면서 ‘의사소통’에 방점을 둔 교육방법들이 주장되어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개성적인 표현능력을 강화하는 반면 문법이 소홀히 혹은 무시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³⁾ 그리고 이러한 역효과에 반대하며 다시 문법을 중시하는 교학방법이 주장되기도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은 외국어 학습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다. 번역교육의 목적이 전문적인 번역이나 통역이라 하더라도 외국어 문장에 대한 규범적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⁴⁾ 전문적인 ‘통역과 번역’을 위한 수업이 아닌 강독 수업에서는 더욱이나 이러한 규범이 소홀히 될 수 없다. 비록 수업이 ‘번역’이라는

2) 이은숙 외, <학부번역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인식도 조사>, 《언어학연구》 17호, 2010, 218쪽.

3) 박숙희, <스페인어 강독수업 연구: 동사 중심 순차번역 교수법>, 《서어서문연구》, 제26호, 2003, 578쪽) “외국어 교수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부터 출발하여 청화식 교수법, 시청각 교수법을 차례로 거쳐 변화해 왔으며, 다시 인지적 교수법을 거쳐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출현 이후 문법 교육의 실종을 낳을 정도로 문법 위주의 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법 교육의 외면은 오늘날 외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 면에서도 장애가 되고 있다.”, “문법 교육을 소홀히 한 학습자들의 경우 비문법성을 전제로 한 의사소통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박숙희는 의사소통 능력에는 기본적으로 문법성 혹은 문법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같은 논문, 579쪽)

형식을 통해 평가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학부 과정 강독수업의 우선적 목표는 문장의 구조와 문장 구성단위들의 기능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 목표가 ‘외국어 능력 향상’인 강독수업 진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번역문에 대한 피드백 즉 오류수정의 과정일 것이다. 강독 수업의 일반적인 평가방식은 중국어 원문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 및 결과물을 평가하는 형식이다. 어떠한 목표 하에 수업이 진행되는 학생들의 번역문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원문에 대한 이해를 글로 표현한 것이 한국어 번역문이며, 한국어 문장에 나타난 오류들은 바로 중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번역문에 나타난 오류를 통해 원문에 대한 이해부족을 파악하고 재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에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강독 교과목 수업에서 개인별 집중적 피드백이 진행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한 수강인원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별 피드백이 힘든 상황에서는 주로 전체 피드백이라는 형식으로 오류유형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오류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분석이다.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찰하여 전체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이다. 혹은 오류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별 번역에 앞서 사전 교육 형식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개별적인 번역 과정에서 오류의 발생을 방지 혹은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함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학생들의 번역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오류 유형들을 정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오류의 유형을 가늠하게 하며 전체적인 피드백에서 학생들이 오류를 자가 수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행해질 번역에서도 오류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013학년도 Y 대학교 학부 중국어 전공 선택 과목인 중국어

강독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과제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이 과목은 총 37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수업으로 참가자는 전원 중국어 전공 학생이다. 사용한 데이터의 수량은 한 학기동안 제출한 과제물이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번역문을 선별하였다. 즉 문장 전체가 오류인 경우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번역문의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번역문은 그대로 옮겨 쓰되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였다.

II. 오류 유형

1. 번역문 분석이 필요한 이유

학부 과정에서의 외국어 강독 수업은 학습의 방식으로 ‘번역’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 즉 외국어의 어휘·문형·문법지식 등을 연마하기 위해 번역을 행하는 것이다. 이를 ‘전문 번역’과 대비되는 ‘학습 번역’이라 명하기도 한다.⁶⁾ 본 대학 학부과정에서 ‘강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번역 또한 외국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번역에 해당하며 이에 부합하는 번역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독 수업은 한국어로의 번역과 번역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은 드물다. 이에 반해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중국어 작문수업의 경우에는 오류를 사전에 잡아주는 서적이 다양한 형식으로 출판되어 있다.⁷⁾ 물론 한국어 번역문에 대한 연구결과도

5) 박소영, 앞의 논문, 86쪽.

6) 박순례, <아랍어 교육을 위한 번역의 활용방안>,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32-33쪽.(같은 논문, 85쪽에서 재인용.)

7) 중국어 작문과 관련된 서적은 2013년 10월 교보문고 검색에서만 총 151건이 검색되고 있다.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텍스트 번역물에 대한 고찰로써 통사적 정확성을 다루기보다는 번역의 등가성 혹은 의미전달의 효능 등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⁸⁾

따라서 번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면 학습효과는 분명 배가될 것이다. 번역문에 대한 피드백 효과로서 문법오류와 표현에 대한 수정을 가장 크게 들고 있는 설문조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⁹⁾ 번역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은 언어 간 표현의 문법적 습관적 차이를 익히는 과정이다. 피드백 과정에서 수합되는 오류 유형은 이후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이것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번역과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이자, 오류들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2. 번역 감수 분야

번역을 감수하는 기준은 중국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였는지, 문맥의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등이다. 번역문 감수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전달’, ‘언어규범’, ‘가독성’, ‘기능적 적합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¹⁰⁾ 이들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바로 ‘원문 의미의 정확한 전달’, ‘한국어 규범의 준수’,

8) 백수진, <중국현대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 문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학》 53권, 2011. 신지연, <중한 번역의 충실성 고찰: 蘇童의 《妻妾成群》을 중심으로 어휘 대응어>, 《중국어문학논집》 66집, 2011. 최용철, <《홍루몽》의 회목 번역기법의 연구>, 《중국어문논총》 47권, 2010. 김혜림, <번역투와 포자미(faux amis) -중한 출판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30권, 2009. 김현태, <한류 영상물 중문제목 번역의 문제점과 대안>, 《중국어문논총》 43권, 2009. 등등 다수의 논문이 번역의 등가성 등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9) 이미경,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제13권2호, 2012, 157쪽.

10) 이향, <번역물 감수의 심층분석을 통한 번역교육 응용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2006. (강경이,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제12권4호, 2011, 16쪽에서 재인용)

‘문장의 논리적 전개’로 이해할 수 있다. 의역을 포함한 표현기교에 대해서는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는 분야로 오류를 논하기보다는 등가성 및 전달의 효과 등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오류 유형을 분석하는 대상에서 이들 의역은 제외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직역을 우선으로 하여 옳은 번역문을 요구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좋은 번역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한 수순일 것이다.

번역을 감수한 결과물을 오류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수분야를 의미영역과 형식영역으로 나누고자 한다. 의미영역으로 분류된 것은 문장의 논리와 연결 같은 내재적 의미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들이며, 형식영역으로 분류된 것은 문법이나 어휘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들이다.¹¹⁾ 번역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은 개인별로 90여개의 문장을 번역하여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오류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과제물을 1,500문장 선별하였다. 1,500문장 가운데 오류로 추려진 문장은 모두 248개였다. 오류 가운데 의미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79개, 형식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169개 문장이다.

아래에서는 각기 형식영역과 의미영역으로 분류된 오류 문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형식영역에서의 오류

번역의 단계를 ‘의미 이해-탈 언어화-재 표현’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¹²⁾

11) 이은자는 <교사 첨삭 피드백의 원리와 방법>(《작문연구》 제9집, 2009)에서 피드백의 유형에 대해, 의미피드백은 글의 주제나 논리와 같이 내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형식 피드백은 문법적인 오류나 어휘 선택과 같은 글의 표현적인 형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강경이, <번역수업에서 번역과 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제12권4호, 2011, 17쪽 재인용). 위의 피드백 유형의 정의를 참조하여 오류 유형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12) 박소영, 앞의 논문, 94쪽.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강독 수업은 ‘의미 이해’가 주된 목표가 되며 문법에 입각한 직역이 중심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독 수업은 문장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독해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각 단위들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한 후 번역문이 도출되어야 한다. 의미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정확성이 번역문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역보다는 직역이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직역 부분을 고찰해보면 학생들의 문법 능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문법적 학습정도가 번역문의 정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의역 답안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문장성분에 대한 파악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의 번역문에서 추려진 248개 오류 문장 가운데 형식영역으로 분류된 문장은 총 169개 문장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오류 문장의 68%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법이나 어휘 등 형식적인 방면에서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영역으로 분류된 오류 문장들은 주로 문장성분 파악, 성분 간의 수식관계 등 문법적인 분석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사나 전치사 혹은 어휘 의미의 파악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어휘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들 오류 문장들을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장 성분 파악

원문의 의미를 이해할 때 문장 성분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성분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악은 의미파악으로 연결된다. 행위자, 행위, 행위대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문장 성분 파악, 그중에서도 술어 파악이다. 중국어는 술어가 주어 뒤, 목적어 앞에 위치함으로써 목적어가 앞에 오는 한국어와 다른 어순을 보인다. 이러한 어순차이는 중국어 번역시에 종종 오류를 야기하며, 이를 한국어 어순이 중

국어 학습을 방해하는 ‘모국어 부정전이’ 현상이라 부르기도 한다.¹³⁾ 술어 외에 주어와 목적어의 파악에도 오류가 자주 등장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① 看那麼多人跟著我，我就站住了，對他們說....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랐고 나는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 ② 中國的春節跟我們的聖誕節一樣，也是一個全家團圓的節日。
 중국의 설과 우리의 성탄절은 같고, 온가족이 한데 모이는 기념일이다
- ③ 我只是問問你，沒有別的意思。
 나는 단지 너에게 묻고 싶다, 다른 의견이 없는지.
- ④ 剛來時不習慣，一年後她已經愛上了這個地方，不願意離開了。
 막 와서 적응하지 못할 때, 1년 후에 그녀는 이 지역을 좋아하게 돼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
- ⑤ 在一家公司搞電腦軟件設計。
 이 회사는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를 하고 있다
- ⑥ 我看見他騎上自行車出去了。
 나는 그를 보고 자전거에 올라타고 갔다.
- ⑦ 心想，他們是雙職工，恐怕不能回來收，就把被子抱進自己的單身宿舍裏，免得被雨淋濕。
 마음속에선 생각했다, 그들은 둘 다 일하니깐 아마도 돌아와서 걷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불을 내가 혼자 있는 기숙사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 이불이 흠뻑 젖지 않도록.

위 예문①에서는 문두에 나오는 술어 “看”에 대한 번역이 생략되었고, 이로 인해 문장 전체의 주어인 “我”의 행위가 달라졌다. 주어인 ‘나’는 ‘보고’ ‘멈춰 서서’ ‘말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사람들’과 ‘나’ 두 명의 주어가 등장함으로써 동작의 주체들이 달라져 버렸다. 예문②에서 주어는

13) 모국어가 목표어 번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부정전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원문의 어순을 거슬러 모국어의 그것대로 번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Dulay, Burt & Krashen(1982), p.101, 박숙희, 앞의 논문, 588쪽 재인용)

“中國的春節”이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주어가 ‘중국의 설과 우리의 성탄절’로 되어 있다. 원문은 ‘중국의 설’을 설명하는 것이나, 번역문은 두 나라의 명절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예문③에서는 절과 절로 이루어진 원문에 대해 뒤의 절을 목적어 성분으로 오역하였다. “我”가 두 절의 공동 주어임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예문④에서는 “不習慣”을 술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예문⑤의 원문은 주어가 생략된 채 부사어가 문두에 나와 있다. 문두를 습관적으로 주어로 해석함으로써 번역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예문⑥에서 술어는 “看見” 하나이다. 그러나 위 번역문은 연동문 구조로 문장을 파악하여 오역이 되었다. 예문⑦을 살펴보면 “心想”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은 “他們是雙職工，恐怕不能回來收”이다. 목적어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오역이 되었다.

성분 파악이 오류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옳게 파악한 문장성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술어 위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어 문장에서 술어는 문장의 말미에 위치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 유형은 대략 술어 번역이 너무 앞서 나온 경우, 혹은 술어가 문장 어미에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경우들이다. 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⑧ 我開始想，不是說有空兒就讓我去嗎？怎麼會這樣不實在？
나는 생각하기 시작 했고,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말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진솔하지 않지?
- ⑨ 電視裏說，已進入初夏的長江地區竟然下了一場雪。
티비에서 말하기를 초여름에 들어선 장강지역에 뜻밖에도 눈이 내렸다.
- ⑩ 學習一門外語，就要了解和掌握這種語言的詞彙。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해와 이러한 언어의 어휘를 장악해야 한다.

번역문의 술어는 한국어 표현습관에 따라 문미에 위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술어 동사는 일반적으로 문두 부분에 오기에 한국어 번역에서도 중

중 원문의 영향으로 술어를 먼저 번역하게 된다. 예문⑧에서 술어는 “開始想”이다. “開始想” 뒤는 목적어 성분이다. 다만 목적어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술어의 문미 번역이 지켜지지 않았고 문장도 매우 어색하게 되었다. 예문⑨에서도 술어를 먼저 번역하고 있다. 술어 뒤에 나오는 목적어 성분이 긴 절로 되어 있는 경우에 종종 이러한 번역이 행해진다. 이는 전체 문장에서 술어의 종결어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술어 번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문장의 수미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문⑩에서는 두 개의 술어가 한 개의 목적어에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술어는 종종 부사의 수식을 동반하며, 번역의 과정에서 이들 부사는 술어의 어미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① 到現在他還沒來，也許就不來了，我們不要等他了。

현재 그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마도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② 我只是認識她，對她並不了解。

나는 단지 그녀를 알지, 그녀에 대해 결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예문⑪에서는 부사 “也許”에 적합한 어미가 술어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일 것이다’의 추측성 어미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문⑫에서는 부사 “只是”가 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술어 번역은 부사와 조화를 이루어 ‘~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2. 수식 관계 파악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 문장 성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분 간의 관계 파악이다. 주어, 술어, 목적어 등 문장의 주요성분 성격을 규명한 후에는 부사어, 관형어 등 수식을 나타내는 성

분을 파악해야 한다. 즉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번역문에는 이러한 관계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오류가 다수 발생한다. 우선 “的”를 매개로 한 관형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오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 ⑬ 所以，還必須掌握每個詞在交際中的用法，了解它在此時此地的意思。
 그래서 반드시 교체중의 용법에서 단어를 파악하고 단어를 이때 이곳에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⑭ 要學好一門外語，我認爲最好是到說那種語言的國家去學習。
 한 외국어를 잘 공부하려면 나는 그 언어의 국가에 가서 말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한다
- ⑮ 電視裏說，已進入初夏的長江地區竟然下了一場雪。
 TV에서, 이미 초여름에 들어섰으나 장강지역에는 뜻밖에 눈이 한 차례 내렸다고 말했다.

예문⑬은 “的”를 중심으로 한 수식관계 파악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피수식어는 “的” 뒤의 “用法”이다. “的” 앞의 내용은 “用法”을 수식하는 성분이다. 따라서 “掌握”대상은 “用法”이어야 한다. 이는 개사 “在”의 용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과도 관계가 있다. 개사구는 술어를 수식하며,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술어 앞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위 예문에서는 술어 뒤에 놓여 있으므로 술어를 수식하는 개사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구의 일부인 것이다. 예문⑭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번역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的”를 기준으로 앞의 내용은 “國家”를 수식하여야 한다. 즉 “說那種語言”이 모두 “國家”를 수식해야 한다. 예문⑮ 역시 “的”의 앞에 위치하는 내용은 모두 수식어로 풀이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치 중국 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것으로 오역되었다.

개사구로 이루어진 부사구는 주로 술어를 수식한다. 그러나 이런 성분들이 술어 수식으로 적절하게 번역되지 않음으로써 오역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⑩ 一天我跟一個中國朋友去了他的家鄉...一個小山村。
하루는 나와 한 중국인 친구는 그의 고향에 갔다....작은 산골에.
- ⑪ 在城市, 在農村, 甚至邊遠山區, 打國際電話也很方便。
도시, 농촌 심지어 변두리산간지역까지 국제전화는 편리하다.

예문⑩에서 개사구 “跟一個中國朋友”는 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我”와 함께 주어틀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다. 예문⑪에서는 개사 “在”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지 않고 있다. ‘~에서’로 번역되어야 ‘시골지역에서 국제전화걸기’라는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위와 같은 번역은 ‘시골지역으로 국제전화걸기’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술어를 수식하는 가장 일반적인 성분은 부사이다. 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세밀하고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번역에서 부사의 수식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⑬ 但是, 只了解一個詞的表面意義是不夠的。
하지만 오직 한 단어의 표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 ⑭ 走到路上, 常常聽到孩子們叫: “外國人, 外國人!”
길을 걸을 때 아이들이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수시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 ⑮ 就拿首都北京來說吧, 就和全國大部分地區一樣, 都有春夏秋冬四個季節。
수도 북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 대부분 지역과 똑같이 모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
- ⑯ 我想她不願意跟我一起去, 不料她說很高興和我一起去。
나는 그녀가 나와 같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그녀가 나와 함께 가자고 기쁘게 말하였다.

예문⑬에서 부사 “只”가 수식하는 것은 술어 “了解”이다. 즉 ‘~만 이해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오직 한 단어’라고 표현함으

로써 “一個詞”에 대한 수식으로 오역되어 있다. 예문⑱에서 “常常”이 수식하는 것은 “廳到”이므로 ‘수시로 들었다’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시로 말하는’ 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따”를 수식하는 오역이 되고 말았다. 예문⑳에서 부사 “都”는 주어와 단독 수량어이므로 뒤의 “春夏秋冬四個季節”를 수식하는 경우이며, 따라서 ‘사계절이 모두 있다’로 번역하여야 한다. 예문㉑에서 “很高興”은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다.

3. 어휘 의미 파악

오역이 발생하는 또 다른 요인은 어휘 번역에 대한 지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어휘의 의미를 알고 난 후에 그것을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1차 의미의 적용 혹은 직역이 ‘자연스러운’ 문장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오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부자연스러운 번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은 주로 기계적인 번역에서 비롯된다.

㉒ 我把這套房子買下了。

나는 이 한 채의 집을 샀다.

㉓ 看到他們笑得那麼開心，我覺得這些孩子非常可愛。

그들이 기쁘게 웃는 걸 보고, 나는 이 몇몇 아이들이 정말 귀엽게 느껴졌다.

예문㉒에서 단위 양사인 “套”는 번역하지 않는 것이 한국어 표현으로 자연스럽다. 학생들의 번역오류에는 양사의 무조건적인 번역이 자주 발견된다. 예문㉓에서 “些”에 대한 번역은 ‘아이들’에 이미 드러나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번역으로 ‘몇 몇’이라는 어색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조사 “的” 또한 기계적으로 번역하여 종종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예

를 들면 아래와 같다.

- ㉔ 解決水的問題是這個城市發展的根本。
물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이 도시발전의 근본이다.
- ㉕ 今天的會議根本沒通知我。
오늘의 회의는 전혀 나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 ㉖ 我們的人民熱愛和平，希望和世界各國人民友好相處。
우리의 국민은 평화를 아주사랑하기에, 세계각국국민과 우호적으로 지 내기를 희망한다.
- ㉗ 從臉上的表情看得出，他並不相信我的話。
얼굴에서의 표정에서 알아 볼 수 있다. 그는 결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문㉔, ㉕, ㉖, ㉗에서는 각기 ‘물 문제’, ‘오늘 회의’, ‘우리 국민’, ‘얼 굴 표정’ 등으로 “的”을 번역에서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㉘ 沒有去過雲南的人，你不會知道那是一個多麼美麗的地方。
운남에 가보지 않은 사람인 당신은 그 곳이 얼마나 하나의 아름다운 장소인지 모를 것이다.
- ㉙ 控制人口是發展中國經濟的一個根本問題。
인구 억제는 중국경제발전의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 ㉚ 北京有很多公園，頤和園是其中最每的一個。
북경엔 많은 공원이 있다. 이화원은 그 중 가장 아름다운 한 개의 공원 이다.

위 예문㉘~㉚는 각기 “一個”를 기계적으로 번역하여 부자연스러운 문 장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오역들은 생략을 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번역들이다. 한편으로는 어휘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변용하지 못함으로써 오역이 발생 한 경우들이 있다. 중국어 어휘와 한국어 한자어가 같은 어형을 지녀 한국 한자어의 간섭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㉑ 他看大家不注意，就偷偷離開了。

그가 모두가 부주의 한 것을 보고 몰래 떠났다.

㉒ 這三天裏，她簡直成了我的導遊，帶我去了南京有名的地方。

3일 동안 그녀는 정말로 나의 가이드가 되어, 나를 데리고 남경의 유명한 지방을 갔다.

예문㉑에서는 중국 어휘 “不注意”가 한국식 한자어와 같은 형태를 지니므로써 오역을 초래하였다. 예문㉒에서 “地方”은 ‘곳, 장소’를 뜻하지만 한국 한자어의 간섭으로 오역이 되었다.

어휘의 의미를 적절한 한국어 표현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오역이 발생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㉓ 既然你的盾堅固得什麼也刺不透，你的矛又鋒利的什麼都刺得透，那麼，用你的矛去刺你的盾，結果會怎麼樣呢？

당신의 방패가 아무리 찢러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면 또 당신의 창은 뭐든 찢러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고 한다면 당신의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㉔ 家裏太亂了 用不著的東西就讀了吧。

집안이 매우 혼란스럽다. 필요 없는 물건은 팔아버려라.

㉕ 但是只要你有事需要幫助的時候，她總會第一個站出來幫助你。

하지만 네가 일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기만 하다면 그녀는 항상 처음으로 일어나 너를 도와줄 것이다.

㉖ 這時從路旁的樓裏跑出來一個女人，抱著孩子左看右看，一副心疼的樣子，我想是孩子的媽媽。

이 때 도로 옆 건물에서 뛰어나온 한 여자가 아이를 안으며 두리번거렸고 애석해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의 엄마인 것 같았다.

㉗ 其實早上你不用叫他，他自己能醒。

사실 아침에 그를 부를 필요 없어.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예문㉓에서 원문은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번역한 ‘아무리 찢러도’는 ‘여러 번 찢러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문맥과 맞

지 않는 오역이다. 예문⑳에서 “亂”은 집안모습에 대한 묘사이므로 감정을 나타내는 ‘혼란스럽다’ 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지럽다’가 적합하다. 예문㉑에서는 “第一個”와 “站出來”에서 오역이 발생하였다. 문맥상 ‘처음’ 보다는 ‘첫 번째’로, ‘일어나다’ 보다는 ‘나서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오역은 “第一”와 “站”에 대한 1차적 지식이 문맥에 맞는 번역을 방해한 경우이다. 예문㉒에서는 “左看右看”에 대해 의미는 알고 있으나 문맥에 맞는 적절한 뜻으로 해석하지 못하였다. ‘아이를 이리저리 살피는’ 동작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문㉓은 “叫”를 문맥에 적절한 ‘깨우다’로 번역하지 않고 사전적 의미로 번역하였다.

한 개 어휘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경우에도 이들을 문맥에 맞게 선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선별에 실패하여 오역이 된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다.

㉔ 在中國呆了了一年多了，語言慢慢不再成爲生活中的問題。

중국에서 1년 동안 명칭했다 언어가 느린 것이 다시는 생활 중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㉕ 中午陰得厲害，好象要下雨。

오후에는 그늘이 굉장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㉖ 他一說，我們都笑了。

그가 한 번 말할 때 우리는 모두 웃었다.

예문㉔에서는 “呆”, “慢”에 대해 제 1의미만으로 번역을 시도하여 오역이 발생하였다. 예문㉕ 또한 어휘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만 습득함으로써 빚어진 오역이다. 예문㉖에 사용된 “一”은 ‘동작을 하자마자’라는 의미이다. 수사 “一”은 관용적인 용법이 많다. 관용적인 용법을 모른 채 기계적으로 수사로 번역함으로써 오역이 되었다.

이 밖에 중국어 보어가 종종 학생들의 오역을 야기하고 있다.

- ④ 他們一聽都哈哈大笑起來。
 그들은 듣고 모두 하하 크게 웃으면서 왔다.
- ⑤ 我們從這裏走下山去吧。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걸어 내려와 산을 간다.
- ⑥ 我既然要學漢語，就一定堅持學下去。
 기왕 중국어를 배워야한다면, 반드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견딜 것이다.

예문④은 “起來”에 대해 “來”의 의미에 집중하여 이것이 보어로 쓰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예문⑤은 “下去”가 보어로 사용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去”를 해석한 오역이다. 예문⑥은 동사에 붙은 보어 “下去”의 해석에서 오역을 보여주고 있다.

IV. 의미영역에서의 오류

오류는 문법이나 어휘 지식 등 형식영역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용, 논리, 주제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의미영역의 오류라 분류한다. 이들 영역의 오류는 번역에 모국어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번역의 오류는 한국어 실력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 번역수업의 수강자격 요건으로 해당 외국어 실력이 40%, 한국어 실력이 25%라는 통계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¹⁴⁾ 우리는 번역을 통해 한국어 표현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의 결함을 수정할 수 있다.¹⁵⁾ 한국어 표현습관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표현해 내는 것도 강독 수업의 중요한 학습목표이다. 형식영역에서의 주의사항이 ‘문법에 입각한 직역’을 강조했다면 의미영역에서의 주의사항은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을 만

14) 이은숙 외, 앞의 논문, 225쪽.

15) Lavault(1987)는 번역교육의 필요성으로 5가지를 주장하였고, 그 가운데 2가지가 모국어 실력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즉 번역에 의해 모국어 표현을 완성시킬 수 있고, 번역을 통해 모국어의 결함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같은 논문, 219-220 재인용)

들어 내는 것이다. 즉 1단계인 직역에서 2단계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문장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어라는 언어적 틀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오류 문장 가운데 형식영역과 의미영역의 비율을 살펴본 바 있다.¹⁶⁾ 오류의 1/3이 의미 영역에서 발견됨을 볼 때 번역문의 내용적 논리적 감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의미 영역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크게 내용면에서 원문의 의미가 생략되거나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와, 절과 절의 연결에서 논리적 연결이 바르지 않은 혹은 부자연스러운 경우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절과 절의 연결

중국어는 절과 절 사이의 관계가 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장 간의 관계는 문맥에 따라 유추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절과 절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어야 한다. 즉 적절한 어미와 접속사 등을 이용하여 문장 사이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절로 구성된 중국어 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절의 종결어미 혹은 연결 어미 등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문장의 뒤쪽으로 주의가 옮겨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며, 또한 의미중심적인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오류는 학생들의 문맥에 대한 이해수준을 살펴보는 자료가 된다. 아래 예문들은 절과 절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다.

④ 他普通話說得很好，大家都以為他是北京人，其實他是上海人。

그는 표준어를 잘한다. 모두들 그 사람이 북경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하이사람이다.

16) 2장 참조.

- ④5 她已經病了好幾天了，我們都不知道。
그녀는 이미 병이 난지 며칠이나 되었다, 우리는 모두 몰랐다.
- ④6 晚上睡得太晚，早上起得早，上課的時候，常常聽著聽著就困了。
저녁엔 늦게 자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고 수업시간에 자주 들으면서 졸곤 했다.
- ④7 已經是春天了，不料竟下雪來了。
이미 봄이 왔고, 뜻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 ④8 我來了快半年了，去的地方很少，甚至連長城也沒去過。
내가 온 지 곧 반년이다. 갔던 곳은 매우 적다. 심지어 만리장성조차도 가보지 않았다.
- ④9 他原來說有事不能來參加晚會了，不料今天他早早地就來了。
그는 원래 일이 있으면 저녁 파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뜻밖에도 오늘 그는 일찍 왔다.

예문④4에서 사람들이 그를 북경인으로 오해하는 것은 표준어를 잘하기 때문이다. 즉 앞 절은 뒤 절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앞 절의 어미에 혹은 뒤 절의 서두에 반영하여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예문④5에서 절과 절의 관계는 논리상 역접이다. 따라서 역접의 의미가 어미 혹은 문두에 드러나야 한다. 문장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음으로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하게 되었다. 예문④6은 절과 절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이다. 따라서 어미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절들이 의미의 병렬로 이해된다. 예문④7은 역접의 관계이므로 역접어미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문④8에서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은 역접의 관계이다. 번역에서 이러한 관계를 밝혀주어야 문맥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예문④9에서 앞 절은 원인과 결과를 담은 축약절이다. 그러나 해석은 가정의 내용을 담은 오역이 되었다.

중국어에서 접속사는 문두에 사용된다. 한국어에서 접속사들은 대부분 종결어미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종결어미에 접속사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번역과정에서 접속사의 해석이 문두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㉞ 老師的問題，不但我不會回答，他也不會回答。
 선생님의 문제는 나도 답을 할 수 없고 또한 그도 답을 할 수 없다.
- ㉟ 這只是我的一點兒意見，至於你們接受不接受，那我就不管了。
 이걸 단지 나의 소견이라 니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난 상관 안한다.

예문㉞에 사용된 “不但”은 ‘~일 뿐만 아니라’의 의미로 뒤 절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접속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속사를 충실히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뒤에 나오는 강조내용이 단순한 병렬로 변해버렸다. 예문㉟에서 “至於”의 뜻은, ‘~에 대해서는’의 뜻으로 화제 전환의 접속사이다. 앞의 화제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소개이다. 뒤의 화제는 상대방의 수용에 대한 태도이다. 그러나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가 번역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나의 별 볼일 없는 의견이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번역이 되어버렸다.

한편 접속사 번역의 경우 접속사의 의미가 앞 절의 어미에 나타난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접속사의 뜻은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원문대로 해석함으로써 표현이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 這些都是我學過的生詞，所以我記住了。
 이것은 모두 내가 공부 했던 단어여서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 ㉢ 雖然我們兩個認識不久，但很快成了好朋友。
 비록 우리 두 사람이 알아온 시간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빨리 좋은 친구가 되었다.
- ㉣ 房間不大，不過一個人夠住了。
 방이 크진 않지만, 하지만 한 명은 충분히 묵을 수 있다.

위 예문㉡~㉣는 모두 번역문 앞 절의 어미에 뒤에 나오는 접속사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접속사를 따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의 중복이

된다.

문맥의 논리상 전후 뜻과 연결되어 생략이 가능한 어휘의미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역시 번역이 중복되게 된다.

⑤ 因此, 我決定出國去留學.

이러하기에 나는 출국하여 유학 떠나기를 결심했다.

⑥ 我的盾特別堅固, 不管用什麼鋒利的矛去刺, 都刺不透.

내 방패는 특히 견고해서 어떠한 날카로운 창으로 찢러도 찢러 뚫을 수 없다.

⑦ 請你替我向老師請個假, 就說我今天有點兒不舒服.

너는 나를 대신에 선생님께 휴가를 신청해줘. 나는 오늘 조금 아프다고 말해줘.

예문⑤에서는 원문의 단어를 모두 번역함으로써 의미가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국’과 ‘유학가다’를 그대로 직역함으로써 ‘유학’에 담긴 ‘출국’의 의미가 중복되게 번역에 드러나고 있다. ‘출국’보다는 ‘외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중복 현상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예문⑥에서는 앞 문장에 찢른다는 동작이 나왔으므로 뒤의 동사는 ‘뚫을 수 없다’만 번역하여도 충분하다. 예문⑦에서 번역문은 부탁의 표현인 ‘~해줘’로 문장이 끝나고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탁으로 ‘너’ 혹은 ‘나’라는 표현을 번역문에서 여러 번 사용할 필요가 없다.

2. 의미 생략

번역의 과정에서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사는 자주 생략된다. 그러나 이는 부사가 주는 다양하고도 세밀한 의미가 생략되는 것이요, 강조의 어감이 생략되는 것이다. 그 결과 내용상 문장이 전달하려는 의도 또한 약화되게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㉘ 他工作太忙了，竟然把妻子的生日都忘了。
그의 일은 매우 바빠서, 뜻밖에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 ㉙ 男女雙方只有結了婚，才可以合理地去養育他們的後代。
남녀가 결혼을 하면, 비로소 그들의 후대를 합리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 ㉚ 看她的樣子只有三十多歲，其實她都四十多了。
모습을 보아하니, 삼십 살이 넘어 보이는데 사실은 사십 살이 넘었다.
- ㉛ 一般來說，老人們六點鐘就起床了。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여섯시에 일어난다.

예문㉘에서 “都”는 ‘~조차’의 의미이다. 그러나 번역이 생략됨으로써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가 생략되었다. 예문㉙에서 “只有”에 대한 해석이 생략됨으로써 결혼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문장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예문㉚에서 전달하려는 의미는, ‘겨우’ 30대처럼 보이는데, ‘벌써’ 40대인 것이다. 그러나 “只有”와 “都”에 대한 해석이 모두 생략됨으로써 강조의미도 모두 생략되었다. 예문㉛에서 “就”의 해석이 생략되어 있다. 위 문장은 단순히 기상시간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시간이 ‘이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부사 생략으로 이러한 의미도 생략되었다.

V. 나가며

외국어 학습에서 ‘강독’이라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교육은 번역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번역은 학생들과 수업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며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게 된다. 논문에서는 학부과정에서 진행되는 중국어 강독수업을 근거로 하여 강독 교육의 목표를 점검하고 번역 결과물을 고찰해 보았다. 학생들의 번역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분석함으로써 이후의 교육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번역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형식영역과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형식영역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문법과 어휘지식 등의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주로 문성성분의 파악, 성분 간의 수식관계 파악 등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의미영역에서 고찰되는 오류유형들은 주로 절과 절 사이의 관계 파악에서 빚어지는 오류들이다. 문맥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학습과, 이러한 이해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표현해내는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적인 피드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유효한 피드백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은 향후 오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독수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어 학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문에 대한 연구가 대량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 參考文獻 >

- 강경이,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제12권 4호, 2011.
- 강수정, <학부 중국어 번역수업에서 일반통번역이론의 적용>,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7호, 2013.
- 박소영, <번역 교육 이론을 적용한 강독 수업 연구>, 《스페인어문학》 제64호, 2012.
- 박숙희, <스페인어 강독수업 연구: 동사 중심 순차번역 교수법>, 《서어서문연구》 제26호, 2003.
- 이미경, <학부과정 번역수업에서의 피드백 방법에 따른 효과 및 학습자의 피드백 인식 비교>, 《번역학연구》 제12권3호, 2011.
- 이미경,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제13권2호, 2012.

이상빈,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K.Reiss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1권3호, 2010.
이은숙 외, 〈학부번역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인식도 조사〉, 《언어학연구》 17호, 2010.

< 中文提要 >

在外语教学方面上, 阅读是不可缺少的教学方式。用阅读方式来进行教育时必有的过程即是翻译。通过翻译可以评价学生的学习水平, 也可以调节教学内容, 因为学生的翻译必然有错误的地方。通过修改这些错误的地方, 教师可以知道学生不懂之处在哪里, 学生可以知道自己的不足而提高汉语水平。本文章试图通过研究分析学生的翻译错误而提示错误类型。这些错误类型既能以集团反馈形式教给学生, 也能以提前教育形式教给学生。提前教育可以减少学生的错误。根据资料的分析结果, 错误类型可以用两个方面总结, 就是语法意义比较重的形式方面和逻辑意义比较重的意义方面。形式方面的错误主要分为句子成分的辨别和成分之间的关系辨别。意义方面的错误主要分为对句子之间逻辑关系的认知和句子意义的变化。希望通过这些研究可以提高阅读方面的教学效果, 也希望对这方面进行大量的研究分析。

Key Words : 강독(reading), 번역(translation), 오류(error), 수정(amend), 피드백(feedback)